

[주간동향] 2006. 6. 8 ~ 6. 14

한국여성개발원 강민정 전문연구원

- ❖ 저출산고령화 대책, 구체적인 방안 제시 필요
- ❖ 기혼여성 구직률 20대 여성 앞질러
- ❖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시급
- ❖ 여성가족부, 경력단절 주부층 취업 교육 및 지원
- ❖ 노동부, 민간 취업기관과 손잡고 취약계층 고용 확대
-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산모도우미 지원

❖ 저출산고령화 대책, 구체적인 방안 제시 필요

최근 출산율이 1.08로 하락한 가운데,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청사진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2010)’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8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를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2010년까지 약 32조원을 투입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화에 적응해 나가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고, ①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②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③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 동력 확보 등 3대 분야 대책을 포괄하고 있다.

출산, 양육의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우선 초점을 두어, 저소득층 중심의 보육료 지원을 중산층까지 차등적으로 확대하고, 만 5세아장애아다자녀 가정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양질의 방과후 학교를 대폭 확대하여 사교육 수요를 대체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젊은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양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육아휴직요건 완화, 휴직급여 인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양육 제한을 완화하는 등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OECD국가 평균 출산율인 1.6수준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 대해 각계에서 많은 관심과 우려를 보이고 있어 향후 개선방안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계에서는 “저출산 근본원인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8일 의견서를 발표,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높은 사교육비 문제는 저출산의 원인으로조차 기술되지 못했다”며 “정부는 고용불안과 청년실업 및 여성경제활동 확대, 사교육비 완화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위한 방안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또한 논평을 내고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수박 겉핥기 대책에 그치고 있다”며 “그저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발표 이후 12일 이루어진 공청회에서는 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실행방안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루어졌다. 특히 토론자들은 정부가 투입하겠다고 밝힌 32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김태현 실장은 “정부안은 국민연금 급여율의 하향 조정,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 등 급여의 하향, 보험료율의 인상 등 재정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의 공적 연금이 감내할 수준(GDP 비중)과 실질 소득 대체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박완기 정책실장은 “정부는 세출구조조정과 과세기반 확충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렇게 추상적 원칙수준으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기존 정책의 재조합’, ‘기업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정책’ 등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기혼여성 구직률 20대 여성 앞질러

기혼여성 구직자 증가율이 20대 청년 구직자층을 앞질렀다. 인터넷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이력서를 신규로 등록한 구직자 수를 분석한 결과, 연간 새로 취업시장에 유입된 기혼여성 구직자 수가 2년 새 7,500명에서 1만 4천 52명으로 87.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20대를 7.6%p 앞지른 것으로 전체 구직자 증가율보다도 23.9%p 높았다.

2006년 4월말 현재, 온라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기혼여성은 6만 3천 338명으로 전체 구직자 중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년 새 4.08%에서 4.68%로 커졌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3만 2천 760여명, 매해 평균 만 명 이상의 기혼여성이 취업전선에 뛰어든 것이다. 특히 40~50대 주부들의 취업시장으로의 진출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취업시장에 새로 들어온 기혼여성이 2003년에는 50대 65명, 40대 347명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50대 290명, 40대 1,067명으로 각각 313.8%, 207.5%나 증가해 경제활동 의지가 강한 20대(92.6%), 30대(60.8%)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더욱이 40~50대가 온라인에 익숙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취업시장에 유입된 기혼여성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일자리를 찾는 중장년층 기혼여성의 수가 크게 늘어난 요인으로서는 자녀들의 학비 부담, 빨라진 남편들의 정년 등으로 인한 '생계유지 불안'을 들 수 있다. 또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출산과 육아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진 주부들이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선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생계유지 혹은 자아실현욕구 충족을 위해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40~50대 주부들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 지적하고, "일하고 싶은 기혼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시급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한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시설장 302명, 보육교사 306명, 취사부 45명 등 총 6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인터뷰 등의 방식으로 실시되었고, 그 결과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및 노동 강도에 비해 급여, 퇴직금 등 처우가 전반적으로 열악하며, 근로환경 개선을 가장 시급히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은 놀이방·어린이집 등 아동의 양육을 돕는 시설로 유치원은 제외된다.

이 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일일 평균 근무시간은 10.5시간, 교사 평균 급여는 106만원으로, 이는 2002년도 실태 조사의 76만8천원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동일학력·유사직종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 또, 보육교사의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한다는 비율이 27.6%에 불과했으며, 약 60%는 전혀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의 경우, 학력이나 보육교사 자격등급에 관계없이 1호봉으로 시작하는 현행 초임호봉의 차등적용 등 보육서비스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직을 자주 생각한다는 비율이 21.5%, 가끔 생각한다는 비율이 56%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비율이 7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부문에서는 모든 보육시설종사자가 가입대상인 4대 보험 가입률이 95% 이상으로 최근 3~4년 사이에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모성보호에 대한 조치는 아직 미흡하여, 출산 유급 휴가를 완전히 보장하는 비율은 31.8%에 그쳤으며 출산 후 계속 근무를 보장하는 비율도 3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여성인 보육교사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모성보호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기본보조금을 교사 인건비와 연계해, 보육교사의 자격 및 학력을 고려한 호봉체계를 구축하며,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보육시설에서 근로시간, 최저임금기준,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 지급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근로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 경력단절 주부층 취업 교육 및 지원

여성가족부는 7일 결혼, 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을 떠난 경력단절 주부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6월부터 1,800여명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2006년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주 5일 근무와 맞벌이 부부 보편화로 고용 창출이 증가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 대해 민간위탁 직업교육 후 취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전체 교육과정은 53개 기관의 70개 프로그램으로, 교육 분야 37개, 보건복지 분야 25개, 환경문화 분야 5개, 보육 분야 3개 등이며 방과 후 아동 지도사, 전문 간병인, 영유아 보육사, 문화체험 지도사 등의 직업을 교육하게 된다.

각 프로그램은 6월부터 8월까지 100시간 이상의 직업전문교육과 6시간의 취업대비교육을 비롯 최소 106시간을 기본으로 실시되며, 교육이수자에 대한 취업 지원은 교육 종료 후 6개월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교육훈련비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과정 당 25~30명의 정원을 모집한다. 실업여성, 경력단절여성으로 사회적 서비스분야 취업 준비 여성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특히 생활보호대상 여성, 실업 상태가 3년 이상인 여성은 우선참여가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잡-서포터즈(job-supporters)교육을 통해 지역 사회 여성 일자리의 확대의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취업 희망 여성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은 각 지역 훈련실시기관(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또는 위탁관리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생산성본부(www.kpcwin.or.kr)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노동부, 민간 취업기관과 손잡고 취약계층 고용 확대

국가가 민간과 손을 잡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고용안정망을 확충하는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지난 13일 ‘일자리 희망 21 프로젝트 위탁 약정식’을 개최했다.

전국 28개 민간취업알선기관과 연계해 장애인, 여성가장, 고령자 등 취약계층 4,637명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위탁하는 ‘일자리 희망 21 프로젝트’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도모하고자 사업공모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5월 우수 민간 취업전문기관 28개 사업체를 선정한 후 이들 사업체가 고용안정센터에서 위탁한 여성가장, 장기구직자 등을 안정된 일자리에 취업시키면 그 성과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취업지원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총 5,100명 모집인원에 5,382명이 신청해 그 중 사업 참여 자격이 있는 4,637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대상자 중 여성가장실업자

는 275명으로 5.9%를 차지하고 있다. 최종 위탁된 취업 지원자는 금년 말까지 민간 사업체로부터 필요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게 되며 취업 후 6개월간 직업상담 등의 사후관리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산모도우미 지원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매년 30억원씩 향후 3년간 총 90억원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산모도우미 지원’협약식을 가졌다. 삼성생명이 예산지원을, 보건복지부가 행정지원을 맡고 시민단체인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가 전문교육을 지원하여 민관의 상생모델을 만들고 향후 저출산 문제 해소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게 된다.

이번 협약과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실시해온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대상을 오는 20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대상인 최저생계비 130%이하 (월 4인가족 기준 152만원)인 가구의 둘째 아이부터 지원하던 것을 첫째 아이까지 포함한 출산 가정에 산모도우미를 파견하는 것으로 확대 실시하며, 이에 맞추어 삼성생명은 최저생계비 130~150%(4인 가족 기준 152~175만원)인 출산 가정에 지원을 집중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중산층과 달리 산후에 휴식시간 부족과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저소득층 산모가 안정적인 산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700명의 산모에게 도우미를 파견하고, 파견되는 140명의 산모 도우미도 저소득층 여성 중에 선발하여 비추미 산모도우미사랑 봉사단을 구성, 교육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자활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